

회고록



진정일
제14대 회장(1997년)

한국고분자학회의 태동

우선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한 한국고분자학회의 제14대 회장(1997년) 직을 맡았던 영광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10여년 가까이 지내다가 1974년 8월에 귀국해보니 그간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음을 느꼈습니다. 화학과 출신으로 고분자 과학을 전공한 나를 국내 고분자 학계는 반겨주었습니다.

당시 - 지금도 그렇지만 - 고분자 학계는 공과 대학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KIST의 고분자 그룹, 서울대, 인하대, 한양대, KAIST, 한국화학연구원, 일부 지방대 등에서 고분자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KIST 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비정기적으로 고분자 콜로퀴움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도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략 20~30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모임에서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필요성이 자주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드디어 1976년 10월 8일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총회가 한국과학원에서 열렸습니다. 발기인은 50여 명이었으며 그 중 30여 명이 창립 총회 때 참가하였습니다. 전체 참가 인원은 2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듬해(1977)에 종합 학술지 ‘폴리머’가 출간되기 시작했고, 1990년에 들어 ‘고분자 과학과 기술’ 지를 분리 출간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영문지 Korea Polymer Journal - 2002년에 Macromolecular Research(SCI 등재)로 개명 - 이 발행되었습니다.

1977년 5월 6~7일에 개최된 첫 총회 및 연구 논문 발표회에는 초청 강연 5편, 연구 논문 16편이 발표되고 참가 인원이 230여명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역대 회장과 임원들의 노력, 회원들의 후원과 열성적 참여, 업계의 지원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989, 1996년과 2020년에는 IUPAC 후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연 2회에 걸쳐 300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참여 인원이 4000명이 넘으니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외국 저명 과학자들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국내 고분자 과학자들도 국제적 명성을 더욱 떨쳐 우리나라 과학 수준을 빛나게 하고 있으니 모두 함께 축하해 줄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고분자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이 글을 끝맺기 전에 우리 학회 초기에 초석을 다져준 몇 분의 성함을 특별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락된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성좌경, 심정섭, 김원택, 정기현, 노익삼, 안태완, 조의환, 최남석, 김은영, 김정엽, 김계용, 이부섭, 한만정, 홍성일, 김광웅, 김성철, 조원제, 조병욱, 김우식, 김봉식 등입니다.